

여성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여수와 익산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 57개로 확산일로에 있음. 여성친화도시 지자체에서는 여성 경제력 증진, 안전, 마을만들기, 공간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자립과 역량강화를 경험하고, 지역사회의 주체적 리더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영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사례 #1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대구 달서구, 2010년 지정)

성별직종분리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단지 내 자동차, 기계, 전자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로 지역 여성의 취업 도모

-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산업단지의 구인 직종과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의 미스매치 해소 필요를 인식함.

• 달서구의 경우, 2014년 전체 기혼여성 235,893명 중 경력단절여성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48,830명(20.7%)이며, 이 중 취업희망 여성 추정치가 25,929명(53.1%)으로 조사됨.

• 달서구 내 성서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만성적 기능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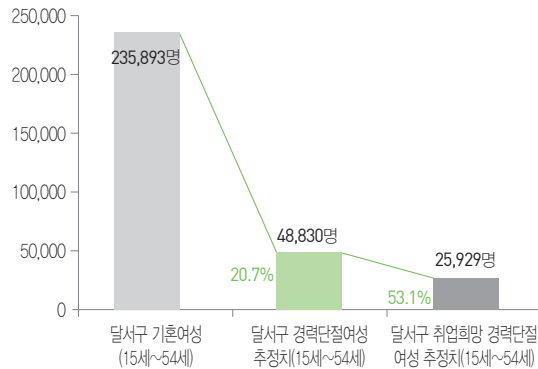
I. 여성 경제력 증진 사업

- ☞ 여성친화도시 여성경제력 증진 사업은 여성이 가족지원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여건 마련을 목표로 하며, 지역기반 취·창업 교육과 취·창업 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발굴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¹⁾.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영역별 목표 및 사업 내용은 최유진 외(2014) 자료 내용을 재구성함.
(최유진·유희정·김양희·손문금·이은아·장미현·허태욱·문희영.(2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 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구직자 대부분이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 지역 내 산업단지로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특히,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교육 뿐 아니라 직업마인드 함양 등 전반적인 취업 지원이 요구됨.



자료 : 통계청(2014),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통계"

[그림 1] 2014년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현황

- 주무부서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 여성 요구 조사 및 성서산업단지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함.

- 여성가족과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 지역 여성(5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요구도 조사(2011년, 2014년)를 실시한 결과, 여성들이 **취업교육, 시간제 일자리, 여성 취업지원시설** 건립을 원하고 있음을 파악함.

- 또한 지역 산업단지 대상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차, 기계, 전자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을 확인함.

- 여성가족과는 경제과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통적 남성 직종인 자동차, 기계, 전자분야에 대한 여성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함.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별직종분리를 극복한 여성인력 양성과정 및 사회복지행정 전문가, 사회서비스 전문가, 식품가공산업 현장실무 전문인 등 다양한 취업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여성특화 취업박람회를 추진하였음.

성서산업단지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여성일자리 창출사업(2013년~)

- 추진 기관 : 여성가족과,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 내용 : 기계 전자 부품조립 및 품질관리 인력양성 과정과 현장맞춤형 품질 생산관리 전문인력 양성
- 취업 성과 : 참여자 중 2013년 88%, 2014년 80%, 2015년 100% 취업

- 또한 산업단지 기업과 연계하여 시간제 일자리 창출 워크숍을 추진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노력을 지속함.

- 그 결과 지역 경력단절여성을 지역 산업단지 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어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여성 요구에 부응한 교육·문화·취업 복합시설인 달서가족 문화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사례 #2

시민강사 활용 안전지도 제작

(경기 시흥시, 2010년 지정)

지역 여성이 여성친화도시협의체 활동을 통해 시민강사로 성장하여 지역 안전지도 제작 사업의 주체로 역할

■ 지역 아동의 안전제고 및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필요성 대두.

- 아동 대상 범죄 감소 및 학교 주변 안전제고를 위해 아동 안전지도 제작의 필요성이 증대됨.

- 적극적 활동으로 여성친화도시협의체 회원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역 사회 기여와 소득 창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시민강사교육 실시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협의체 회원을 시민강사로 육성함.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강사 육성사업(2012년)

- 추진 기관 : 가족여성과
- 대상 : 여성친화도시협의체 회원 및 일반 시민 25명
- 사업 내용 : 시민 양성평등 이해 제고 목적으로 기본 과정 10강과 심화과정 7강(강의안 작성, 강의시연 등) 진행.
- 사업 성과 : 참여자 중 4명의 시민강사 육성



자료 : 시흥시(2015), "시민강사 양성을 통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제1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자료집」

[사진 1] 시민강사 육성과정

■ 시민강사가 주체가 되어 지역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진행함.

- 시민강사들은 지도 제작 준비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별 담당자와 사전미팅 및 현장 답사를 진행함.

- 이 후 시민강사와 여성친화도시협의체 회원,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함.

- 안전지도 배포 및 효과 확산을 위해 시민강사가 주체가 된 학교별 후속 안전교육도 병행함.



협의체 대상 사전 교육



학교별 사전 미팅과 현장 답사



학교별 후속교육



아동안전지도 제작

자료 : 시흥시(2015), "시민강사 양성을 통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제1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자료집」

[사진 2] 아동안전지도 제작 과정

■ 지역 아동안전 제고 및 새로운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2013년 35개, 2014년 11개, 2015년 8개 학교가 아동 안전지도제작에 참여하였고, 안전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 등 후속교육 만족도도 높았음.

-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 발견된 위험요소는 시청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함.

- 향후 지역 내 양성평등 이해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의 민간 주체로서 여성친화도시 시민강사를 확대 할 예정임.

II. 안전 사업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내 안전위해요소 제거와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안전대처 능력 향상 교육, 지킴이 · 동행서비스 등 안전사업 연계, 지역 안전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사례 #1

안심귀가 서비스 (경기 안산시, 2011년 지정)

심야 귀가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및 지역주민의 안전 제고를 위해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여 여성 · 아동 대상 범죄 감소에 기여함.

- 지역 주민의 안전 제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차원의 안전사업 필요성이 대두됨.

- 2012년 지역 내 강력범죄 발생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증가함.

- 또 지역 산업단지의 교대근무제도로 인해 야간 귀가 여성이 많은 상황에서 여성 대상 성폭력 및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여성의 안전귀가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함.

-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자율방범대,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주민 간 협조를 통해 사업을 계획함.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와의 자문회의 및 경찰서 등 외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기획 및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가족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전귀가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 타 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자율방범대 및 경찰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참여 및 지원체계 확립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사업 내용 심의 및 환류

■ 학생 · 여성 대상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시작함.

- 일시 : 2012년 6월 ~ 현재까지.
- 대상 :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 및 아동, 여성
- 시간 : 23:00 ~ 익일 01:00
- 지원내용 : 인적이 드문 지역, 대중교통 미운행 구간 등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 시간대 이동 시 집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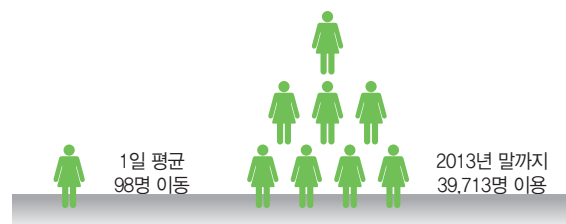


자료 : 박재규(2015), "여성친화도시 지자체별 대표사업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사진 3]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주민이 주축이 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야간 귀가 시 안정성 제고.

- 사업 추진 이후 1일 평균 98명, 2013년 10월 말까지 39,713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음.
- 2015년 시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이용자 중 9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매우 만족 54%, 만족 37%)²⁾.



자료 : 안산시(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증빙자료"

[그림 2]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이용자 현황

2) 박재규(2015), "여성친화도시 지자체별 대표사업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자료

Ⅲ 마을만들기 사업

- 여성친화도시 마을만들기는 돌봄, 안전, 여성일자리 등 여성의 삶을 둘러싼 사업이 공존하고, 지역 여성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사례 #1

운남주공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광주 광산구, 2011년 지정)

마을 내 재봉틀과 수공예 교실 활성화를 통해
관련 협동조합 설립 및 수공예방 창업으로 연계

- 광주광역시는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함.

-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여성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2012년부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³⁾.

- 2013년 운남주공아파트 부녀회의 '삼삼마을만들기 프로젝트'가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됨.

- 지역 여성취업 희망자에게 재봉틀 및 수공예 교육을 실행함.

-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재봉틀 및 수공예 기술을 습득하여 희망여성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엄마와 함께 하는 미싱 체험', '미싱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과 주민의 참여를 독려함.

- 또 마을축제 및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서 수공예·재봉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함.



자료 : 광산구(20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 제1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자료집

[사진 4] 수공예 교실 모습

- 여성이 주축이 된 마을사업을 구체화시켜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



3) 2012년 행운목(행복나눔 운남 목련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16개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이 추진 중임(광산구(20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 제1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자료집).

IV. 공간개선 사업

- 여성친화도시 공간개선 사업은 비가시화되어 있던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여성이 주체가 된 공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됨.

사례 #1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인천 부평구, 2011년 지정)

지역 주민의 문화 확산과 소통 증가, 녹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참여형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및 공간이 낙후하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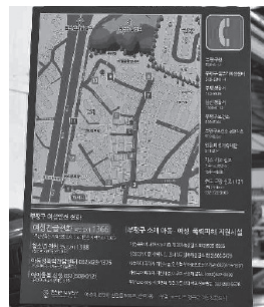
-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 정체와 공가 발생, 청소년 우범지대 방치로 주민 안전 제고의 요구가 높아짐.
- 특히 주거환경 낙후로 젊은 층의 이탈과 지역 주민 간 소통단절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제고와 주민 참여 독려가 필요한 상황임.

- 에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성친화적 거리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함.

- 버스정류장 혹은 공공시설로부터 마을 끝까지의 거리를 여성의 보폭으로 표현하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추진함.
- 2013년부터 주거취약지구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의지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동 주민센터, 안전재난관리과, 여성친화서포터즈단과 협력하여 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음.

■ 주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 확산, 소통 증가, 녹색환경 공간 조성!

- 주거지역 골목길과 우범지대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현장 개선 작업을 시행함.
- 안전 제고를 위한 마을안전지도 제작과 범죄예방 도색, CCTV 등 방범 시설 확대 및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간이 화단 및 골목길 도색 등 다양한 작업을 추진함.
- 이 과정에서 여성친화서포터즈와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짐.



마을안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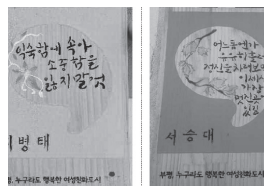
범죄 예방 도색



틈새 화단



주차장 입구 쉼터



스마일 문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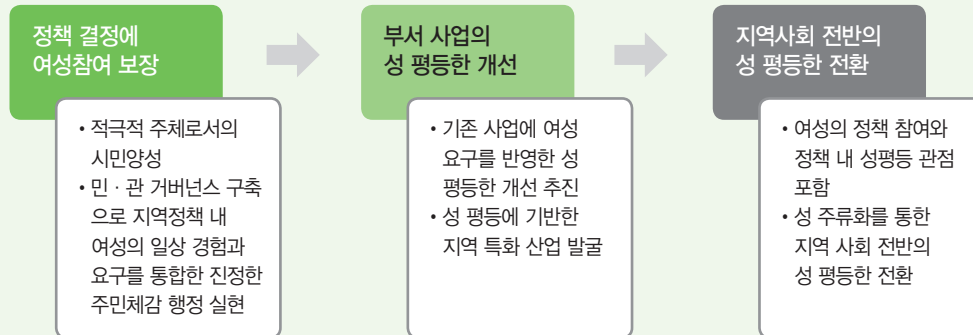
골목길 도색

자료 : 박순주(2015), “여성친화도시 지자체별 대표사업 보고서”, 한국 여성연구원 내부자료

[사진 5] 사업 추진 현황

여성친화도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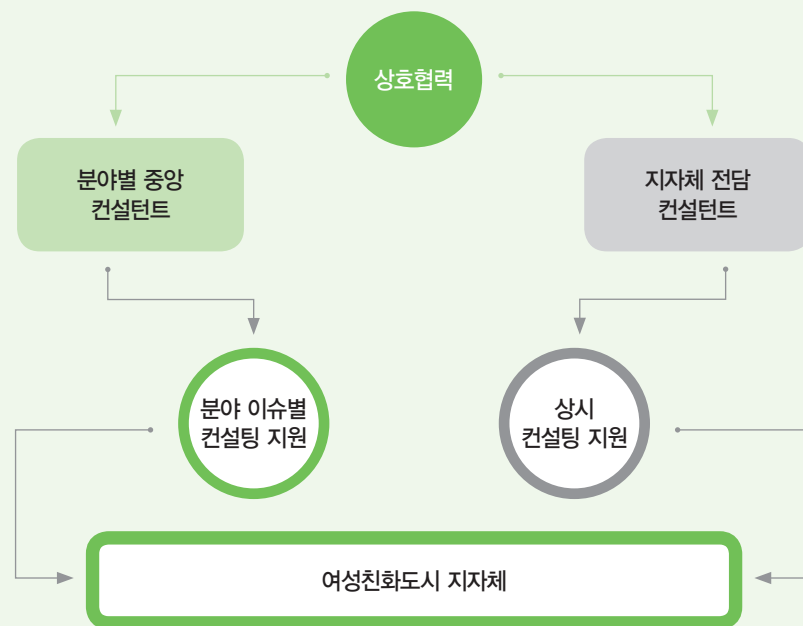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한 지역 공동체가 구현되는 완결된 행정단위를 의미함. 2009년 여수와 익산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자료 : 유희정 외(2010), 『여성친화도시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여성친화도시 안내서』; 최유진 외(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3] 여성친화도시의 의미

- 『양성평등기본법』(2015.7.1.) 3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참여와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향후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 과정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 달성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은 지역 여성정책 연구자, 도시계획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준비 단계부터 조성현황 점검, 기본적 인프라 구축 협의, 공모사업 및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함.
 - 컨설턴트는 지자체와 1대1 연계한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와 분야별 중앙 컨설턴트로 이원화되어 있음.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개선을 지원하고, 분야별 중앙 컨설턴트는 도시계획·건축·조경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로써 필요 시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컨설팅 수행함.



[그림4] 2015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구성체제

〈표 1〉 2015년 여성친화도시 현황

지정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2009년	익산시, 여주시
2010년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수원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 당진군
2011년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안양시, 안산시, 동해시, 아산시, 김제시, 장흥군, 영주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의정부시, 광명시, 영월군, 제천시, 포항시
2013년	부산 중구, 부산 남구,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용인시, 원주시, 보령시, 태안군, 남원시, 구미시, 경산시
2014년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영도구, 고양시, 김포시, 홍성군, 거창군